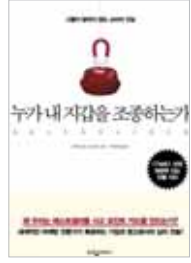


행복한 **책** 읽기

마틴 린드스트롬 '누가 내 지갑을...' <웅진지식하우스 펴>

나는 가끔 조카들과 함께 프랜차이즈 형태의 뷔페에서 식사를 한다.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20%를 할인해주는 할인 카드가 있어서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다. 게다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50% 할인 쿠폰까지 주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돈을 지불하고 나오면서도 혜택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심지어 대기업이라 서비스가 다르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재 기업들이 자사 제품은 물론 경쟁사 제품까지 진열해 놓은 실험용 가짜 슈퍼마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과연 그럴까? 20여 년 동안 마케팅의 최전방에서 마케터로 활동했던 저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마케터들이 어떻게 진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조작하기 위해 어떤 물리적·심리적 전술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아이들이 가족

그들은 그 곳에서 제품이 어디에 놓여있을 때 매출이 극대화되는지 보기 위해 소비자들의 행동을 카메라나 두뇌 스캐너로 스캔하고 있다.

나는 자주 대형마트로부터 나만을 위한 맞춤형 할인 쿠폰을 받는다. 할인 쿠폰들은 내가 한 번쯤은 구입했거나, 사려고 마음먹었던 것들이다. 내 취향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소비의 진실

지 않게 하기 위해, 가족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성에게 섹스어필하기 위해, 옛 추억이 생각나서, 유명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등 온갖 이유로 물건을 산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도 나만을 위한 할인 쿠폰이 날아드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터들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마케터들은 첨단 도구와 기술, 소비자의 행동, 인지심리학 등을 통해 사람들의 두뇌를 스캔한다. 그리하여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희망, 취약점과 욕망을 발견해내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마이닝은 소비자의 행동을 추적하여 분석하고, 이를 다시 분류하고, 종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를 설득하고, 물건을 사도록 자극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이다.

마케팅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 하나도 무작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놓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형 소비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친구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신용카드를 긁고, 노래를 다운 받고,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볼 때마다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 마이닝 기업들에게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다.



나정 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고래사냥·목축... 돌에 새겨진 선사시대 일상을 만난다

광주박물관, '반구대 암각화' 탁본전시회 30일까지

동물·사람·자연·사면 등 수백여점 다양한 기법 제작

'국보 제285호' '그림으로 쓴 역사책' '문화재 가치 5000억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모습 암각화' 등등...

'반구대 암각화'를 지칭하는 표현들이다.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문화유산이지만 보존방식을 놓고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10년째 해묵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의 중심은 반구대 암각화가 해마다 4~8개월간 사면면 물에 잠겨, 점차 그 형태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섰다. 하지만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곧 장마가 다가온다. 반구대 암각화는 또 물에 잠기게 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탁본 전시회를 마련했다. 4일 개막한 '그림으로 쓴 역사책, 반구대 암각화' 탁본전시회를 찾았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중앙홀에 위치한 가로 8m, 세로 4m의 반구대 암각화 탁본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얀 바탕에 검은색으로 대비되는 선과 면으로 표현된 사슴, 호랑이, 거북이, 고래 등은 탁본에서도 드러나는 양맥의 갈라진 속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윤곽선을 파내거나 표면을 긁어내거나 점을 새기는 등 다양한 기법으

로 제작된 암각화에는 수백여 점의 동물, 사람, 사물이 등장하지만 하나같이 모양과 표현방법이 확연하게 다르고 선명했다. 이는 이 암각화가 오랜 세월 동안 새겨지면서 표현기법이 변했고, 그네들의 생활상을 기록하는 책의 기능을 했음을 알려준다.

이 탁본은 문화재청이 지난 1980년대 때 뜬 것으로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오동나무관에 보관해 오다가 처음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 걸리면서 빛을 보게 됐다.

전체적으로 암각화는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됐다. 왼쪽에는 바다동물이, 오른쪽에는 육지동물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는 육지동물과 바다동물이 뒤섞여 있다.

암각화의 특이한 점은 고래 등 바다동물은 수직으로 배치돼 있고, 호랑이, 사슴 등 육지동물은 수평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육지동물을 평지에서 바라다보고, 바다동물은 수면 위에서 비치는 형태를 보면서 그렸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를 준비한 김주홍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는 "당시 사람들이 목축을 주로 하면서 특정기간에 고래를 사냥한 것으로 추측 된다"고 말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모습이 새겨져 있다. 배를 탄 사람들이 고래를 잡는 모습이나 고래 위에 크게 그려진 창과



4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막한 반구대 암각화 탁본 전시에서는 선사시대 역사를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재청-울산시 보존방식 놓고 10년째 대립

사면댐 건설 후 반복적 침수... 형태 훼손 심각

함께 고래가 괴로워하며 몸을 비트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물도 등장한다. 고래가 울산 인근 바다를 지나 이동했음을 알려주는 근거 자료이기도 하다. 동물들 자체가 생동감 있게 표현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새끼 고래 등에 업고 있는 귀신고래였다. 귀신고래는 새끼를 업고 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당시 이를 파악한 사람들이 양백에 대고 옮겨 놓은 것이다. 지난해 여수

세계박물관에서 선보였던 고래와 닮은 듀공도 눈에 보였고, 고래가 호흡을 하면서 숨구멍으로 물을 내뿜는 장면을 그려놓은 암각화도 있다.

맹수에는 장식을 새겨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호랑이는 줄 무늬까지 세세하게 표현했다. 김주홍 학예사는 "동물들 둘러싼 울타리에서는 목축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면, 영혼을 삼고 하늘로 올라가는 배 등 당시의 종교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

들도 여러 눈에 띄었다. 인류의 삶과 영원을 그대로 담고 있어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었다.

김종만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실장은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에게도 역사책이고 당시에는 일종의 소통도구이자 후세에게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 교과서적 의미가 강하다"며 "세계적으로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암각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반구대 암각화가 보존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미술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며 탁본과 함께 각종 자료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다.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유쾌한 색의 축제

'로메로 브리토'전 12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

팝아티스트 로메로 브리토(Romero Brito)는 입체주의, 팝아트, 그래피티 아트 등 미술의 다양한 영역을 자신만의 밝고 희망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작가다. 작품의 주된 메시지는 사랑과 행복, 즐거움과 삶이다.

그는 특유의 경쾌한 색감과 대중적 소재, 강렬한 구성력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2007년 제41회 슈퍼볼경기에서 그가 보여준 '마티스가 피카소를 통하여' 퍼포먼스는 세계인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로메로 브리토'전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시다.

그의 조각, 회화,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다. 유쾌한 원색과 힘이 넘치는 블랙 라인의 명쾌함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다. 작품 속 춤추는 커플, 앙증맞게 미소짓는 고양이, 만발한 꽃다발, 귀여운 금붕어는 현대적이면서도 심플한 멋을 자아낸다.

브라질 출신인 로메로 브리토는 1983년 유럽여행을 하면서 피카소,



'Mother'

마티스 등의 작품을 연구했고, 이후 대중의 관심의 받기 시작했다. 1989년 예술루트 보드카 로고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념우표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전시는 12일까지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Flower pot'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5~30일 임시 휴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세계김치문화축제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전시환경 개선 작업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임시휴관에 들어간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휴관 기간 동안 1만3000여 점에 달하는 수장고 내 소장유물과 전시유물 정비와 전시실 환경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휴관 기간 중에도 분관 분청 사기전시실과 월계동 장교분은 정상 운영된다. 문의 062-613-5363. /김경민기자 kki@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유·스퀘어점

	일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on : Millet-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쉐프가 만든 수제 맥갈비 스테이크 Wednes : Maes Beefgald steak chef 10,800
	매콤한 요남자 필라프 Tues : YONAMJA Soley sause steak 7,900		핫 스페이스 오렌지 소스 pork 스테이크 Thurs : Hot Soley Orange Souse pork steak 10,800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

ielysia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화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화생이상 29,000원